

## 시장 말 한마디에...기로에 선 광주폴리

“예산 대비 효과 없다” 재검토 지시...5차 폴리 일정 전면중지  
잇단 수상 등 광주 브랜드 자리매김...“행정 편의적 추진 문제”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인 ‘광주 폴리’ 사업이 기로에 섰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 폴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올해 안에 사업 지속성 여부를 포함한 폴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향후 광주 폴리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폴리 사업에 대한 점검 과정은 필요하지만, 10여년간 지속된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가 시장의 발인 한마디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적인 논의·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시장이 ‘답’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폴리 사업으로 설치된 시내 조형물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폴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0년 승효상 건축가가 총감독으로 참여해 시작된 ‘광주 폴리’는 지금까지 모두 30여 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설치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모두 85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사업은 ‘관문형 폴리’로, 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폴리’는 ‘2019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과 2017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고 있지만 이번 이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5차 폴리와 관련한 일정은 전면 중지된 상태다. 폴리 운영을 맡은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경우 당초 이번주 초 예정된 5차 폴리 관

련 뉴욕 리서치 일정을 급작스레 취소해야 했다. 시에서는 폴리사업 재검토를 위해 관련 TF팀을 꾸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화계에서는 3차까지 진행된 폴리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광주 폴리 가운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View 폴리’, 장동 로터리 ‘소통의 오두막’ 등은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폴리로 인기가 높다. 반면 총장로 파출소 앞 ‘99칸’ 등 일부 작품은 ‘홍물스럽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 과정이 시장의 지시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엔날레 재단이 폴리 작품의 수정·보완·개선 등 계획을 세우고 있고 폴리시민협의회 등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꾸려지는 TF팀이나 평가담당관실이 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과물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용섭 시장은 22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폴리에 대해서는 쏟아부은 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실무 부서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5차 폴리 실행여부까지도 포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시장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 예산 등 돈 들어가는 곳이 많아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처음 폴리 사업이 시작될 때 공론화 과정 없이 시와 몇몇 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폴리 재검토 건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선입견 없이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8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CICA) 시장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그리고 아시아-유럽 15개도시 시장 및 대표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5·18 진상규명서 인공지능 집적단지까지 광주·전남 현안 예산삭감 베푸는 한국당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  
내년도 예산 확보 난항 우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문제사업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 하면서 광주·전남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2면> 28일 한국당 정책위가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을 보면, 광주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과 5·18진상규명 관련 사업 그리고 목포에 신설될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신설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눈에 띈다. 한국당은 광주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융합기술을 발미로 타지역 전락 사업까지 연구하겠다는 건 국가균형발전 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삭감을 베풀고 있다.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발목잡기 행태’는 돌아보지 않고,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정상 활동 시작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정부 편성 예산에 칼질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망언과 역사 왜곡

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안면불수한 작태”라고 강력 규탄한 바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기조는 “경제정책 전환 없이 올해보다 43조9000억원 증가한 예산안은 ‘퍼즐리움’의 후폭풍이자 국민 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 삭감 여부 방침을 세웠다가 보다, 연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흔들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심산으로 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1야당인 한국당의 ‘예산 삭감’ 방침이 확고해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지킨다는 각오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장 오는 31일 국회에서 예정된 민주당 예산정책 협의회에 이용섭 시장이 참여해 지역의 절실함을 강조할 예정으로, 지역 주요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도시의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靑·유럽 창의혁신도시 연대 시장 회의

문화전당서 14개국 도시 참석  
창의문화산업 동반성장 등 모색  
아시아와 유럽 14개 국가 도시 시장들이 광주에서 문화 창의혁신도시 연대를 맺고 창의문화산업에 대한 동반 성장과 도시 간 네트워크를 모색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 연대 시장 회의’가 열렸다. <관련기사 5면>

29일까지 이들 간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에서 스리랑카 콜롬보, 중국 남경, 필리핀 마라위, 방글라데시 쿨나, 말레이시아 페낭 등 6개국 도시 시장을 비롯한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오르후스, 영국 웨스턴오브 잉글랜드, 벨기에 브뤼셀, 터키 부르사, 아제르바이잔 간자, 프랑스 메스, 독일 뮌스터, 핀란드 투르쿠시 등 8개국 시장들이 참가해 창의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만들기, 광주역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벨리,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 위주로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경제는 생태·문화·예술이 지배한다”면서 “기술경제 시대는 저물고 문화경제시대가 열리며, 진정한 도시의 힘은 인구나 면적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고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한편, 29일에는 참가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창의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

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시 간 국제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각 도시의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이어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아시아-유럽 도시연대 시장 회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동력이 될 창의산업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신하고 발전시켜 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제7차 ASEM 문화장관 회의’에서 제안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 · SEOUL · U  
나의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지역특산물을, 정책을 한곳에! 「2019 지역상생박람회」로 오세요”



**일시** 2019. 11. 02.(토) ~ 03.(일) 10:00~18:00 / 2일간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및 무교로 일대  
**프로그램** ① 상생토크콘서트(11.02.(토) 서울시청)  
②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무교로, 프레스센터 앞 광장)  
③ 정책 홍보·체험 부스(프레스센터 앞 광장)

“서울시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합니다”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프로그램 <NEXT LOCAL> 2020년 참여지자체 모집 중